

2008년 06월 04일 (수) 02:58 [한국일보](#)

'부산문화재단' 내년 1월 출범

민간 주도 문예진흥 추진...2018년까지 300억 기금 적립

부산시가 민간 전문가 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이 내년 1월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시는 2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오재환 부연구위원의 재단 설립방향 및 추진일정에 대한 주제발표 내용을 기본안으로 이 달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 세부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어 시는 재단 설립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연말까지는 법인설립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오 위원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메세나 등 민간부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단 설립방법은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으로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시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억원씩을 출연해 3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시는 문화공간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및 정책, 기획, 법·제도 개선, 중앙정부 연계사업을 담당하고 재단에서는 각종 문화사업 집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및 문화예술행사의 위탁, 지역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체성 확립, 문화시설 위탁운영 등을 나눠 맡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문화재단 조직은 시와 재단의 의견조정 편의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출연기관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부산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1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에 문화예술계 대표들을 선임해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사무처 인원은 소규모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문화재단 설립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출범시킬 방침"이라며 "부산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문화재단 설립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